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

김 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강사

강 영 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이 미 아**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부산 소재 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정인지체아동 6명이며, 연구방법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이용하였다. 개별 또는 짝활동으로 이루어진 난화활동프로그램을 8주간 주 2회 방과 후에 실시한 뒤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도구로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보고식 설문지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퍼즐게임'과 '스티커 게임'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사전·사후 점수에 대해 비모수 통계 중 대응 2-표본검증을 실시하고 검정유형으로 Wilcoxon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난화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은 교사보고식 설문지에서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인 퍼즐게임과 스티커 게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효능동기는 높아졌고, 외부지향성은 낮아졌다. 따라서, 난화활동프로그램은 정인지체아동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어 이들의 효능동기를 높이고 외부지향성은 낮추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주제어 : 난화활동프로그램, 정인지체, 효능동기, 외부지향성

1. 서 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학업적 능력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정인지체아동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 교신저자, 2단계 BK21 특수교육 사업팀 (kangys@pusan.ac.kr)

** 2단계 BK21 참여 대학원생

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을 가능하면 피하려는 성격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학업을 비롯한 사회적 수행에 있어 정인지체아동들이 가진 인지적 기능결함과 적응행동에서의 문제점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요구된다.

정인지체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정인지체학생들은 학습활동과 사회적응에 있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을 갖거나(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Dweck & Bush, 1976; Gardner & Seligman, 1980),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낮은 성공기대감을 보이며(Butterfield & Zigler, 1965; Cromwell, 1963),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효능동기가 부족하여 결국 학교에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Merighi, et al., 1990; Zigler & Hodapp, 1986). 이 외에도 정인지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나 애매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다른 사람 또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외부지향성이 높고(조난희, 2001; Achenbach & Zigler, 1968; MacMillan & Wright, 1974), 외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려는 긍정적 반응경향이 높으며(Balla, Butterfield, & Zigler, 1974; Zigler & Balla, 1972), 낮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지나치게 경계하고 거부하는 부정적 반응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llenberger & Zigler, 1961).

이 가운데 인간이 보다 유능해지도록 이끄는 내적 동기로, 성취감이나 유능감을 느꼈을 때 생겨나는 즐거움인 효능동기는 특히 정인지체아동들에게 있어 중요한 성격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Harter, 1974). 이러한 효능동기는 새롭거나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능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무력감이나 회피, 또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정인지체아동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을 모방하거나 외부의 단서를 사용하는 외부지향성을 보인다(Balla, Styfco, & Zigler, 1971; Bybee & Zigler, 1992; Cohen & Heller, 1975; Lustman & Zigler, 1982; Turnure & Zigler, 1964). 외부적 단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주는 반면, 지나치게 외부지향적일 경우 잘못된 단서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인지체아동들은 효능동기가 낮아 쉬운 과제를 선호하고, 어렵거나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arter, 1977)현재의 낮은 수준을 극복하도록 교육적으로 중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인지체아동들의 낮은 효능동기와 높은 외부지향성의 공통된 원인은 반복된 실패경험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Turnure & Zigler, 1964). 따라서 정인지체아동에게 학업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Bennett-Gates & Zigler, 1999). 이와 관련하여 정인지체아동들이 스스로 과

제에 도전하고 수행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지원하여 효능동기를 높이고 외부지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 무용과 같은 심리치료적 접근법이나 목표설정훈련이나 귀인훈련, 사회적 기술 훈련 등과 같은 인지-행동적 접근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미술치료는 아동의 욕구불만을 발산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과제 수행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경은, 2003; 김영주, 2004; 김선화, 2002; 김현숙, 2001; 박미정, 2000; 오규영, 2002; 이인호, 2005; 정효정, 2002; 팽은경, 2002)에 비추어, 언어 및 인지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정인지체 아동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미술치료 기법 가운데 난화활동은 직선이나 곡선, 구불구불한 선, 지그재그 선 등의 다양한 선을 이용하여 개인의 무의식적 본능을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Claman, 1980). 일반적으로 효능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취미나 흥미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Dykens,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난화는 낙서와 같이 아무렇게나 긁거나 긁적거리고 휘갈겨 그린 다음, 그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제 수행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얻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난화활동은 미술이기는 하나 놀이적 측면이 강하고 자유롭고 손쉬운 과제완성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외부적 지시나 단서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줄여준다.

정인지체아동들이 과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자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Hodapp, & Fidler,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난화활동은 아동과 치료사가 함께 낙서 속에서 그림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난화는 정인지체아동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나 생활에서의 관심, 감정, 정서 및 성격 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손성화, 강영심, 김지훈, 2006; Klepsch & Logie, 1982; Kurihara, 1994; Sherpherd, 1987; Takano & Kurihara, 1992) 아동을 이해하고 중재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하겠다.

본 연구는 난화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아동중심의 놀이활동을 통해 성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효능동기를 높이고, 외부지향성을 낮출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인지체아동에게 난화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정인지체아동들에게 효능동기를 증진시키고 외부지향성을 낮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정인지체로 진단받고 특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초등학교 6명(남 3, 여 3)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아동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

| 아동 | 성별 | CA | SQ | IQ | 아동 특성 |
|----|----|----|----|----|--|
| A | 남 | 9 | 75 | 73 | 밝고 명랑하나 주의가 산만하다. 고집이 세고 참을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교사와 또래의 반응에 민감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수학급에서는 명랑하나 통합학급에서는 말이 적고 위축되어 있다. 아버지는 밤 근무를 하는 직업으로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적으며, 어머니는 장기간의 병환으로 아동을 거의 돌보지 못한다. |
| B | 여 | 9 | 64 | 63 |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교사의 지시에 매우 순응적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다른 아동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아동의 지시에 잘 따른다. 학습에 흥미가 없다. 시설에 입학되어 있으며, 가끔씩 어머니가 시설을 방문하여 아동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
| C | 남 | 9 | 96 | 73 | 주의 산만하고 다른 아동의 행동에 민감하다. 다른 아동을 놀리거나 건드리는 행동으로 따돌림을 받으며, 참을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학습에 흥미가 없다. 미술 활동시 연필과 크레파스를 꼭 눌러 부러뜨리는 거친 행동을 보인다.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며 어머니는 한 번씩 가출하는 등 가정이 불안정하고 아동이 아버지를 무척 무서워한다. |
| D | 남 | 11 | 68 | 31 |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며 표현력이 떨어진다. 발음이 불분명하다. 다른 아동의 행동을 많이 모방한다. 풀칠, 가위 사용, 물감 사용이 서툴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

<표 II-1>에서 계속

| 아동 | 성별 | CA | SQ | IQ | 아동 특성 |
|----|----|----|------|----|---|
| E | 여 | 11 | 72 | 74 | 항상 무표정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하다. 그리기에 흥미가 많고 표현력이 좋다. 아버지가 계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게를 하여 밤늦게 귀가하여 아동이 방임된 상태이다. |
| F | 여 | 12 | 42.5 | 47 | 밝고 명랑한 편이며 교사의 반응에 민감하다. 다른 아동과 자주 부딪히는 편이며, 주의 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참을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다. |

2. 연구설계

본 실험연구에서는 난화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 | | | |
|------|----------------|---|----------------|
| 실험집단 | O ₁ | X | O ₂ |
|------|----------------|---|----------------|

O₁ : 사전검사, X : 실험처치 (난화활동프로그램), O₂: 사후검사,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보고와 아동에 대한 실험측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교사보고는 ‘정인지체아동용 성격검사도구(EZ-Yale Personality Questionnaire, Zigler, et al., 1999)’ 가운데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와 관련된 문항을 골라 교사들에게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실험측정은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퍼즐게임(Harter, 1974)과 스티커게임(Zigler & Lustman, 1982)을 실시하여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교사보고는 일반적인 학교장면에서 또래나 교사, 사회적 규준에 의해 제공된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반면, 아동에 대한 실험측정은 특정상황

에서 낮은 어른인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는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반응경향성과 특정 단서에 대한 반응유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교사보고와 아동 실험측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1) 효능동기 검사

효능동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부지향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를 담임교사에게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동에게 ‘피즐게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수행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1)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Zigler 등(1999)이 제작한 정인지체아용 성격검사 도구를 번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그런 다음 이 검사지가 본 연구 대상자인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직 특수교사 3인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면담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된 문항을 특수교육 전문가 2인과 심리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한편, Zigler 등(1999)에 의해 개발된 정인지체아용 성격검사 설문지는 총 37개 문항의 효능동기, 성공기대감, 긍정적 반응경향, 부정적 반응경향, 외부지향성, 순종, 호기심/창조성의 총 7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효능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표II-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총 7문항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5로 나타났으며, 효능동기 .85, 외부지향성 .71로 나타났다.

<표 II-3>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의 효능동기 문항내용

| 번호 | 문 항 내 용 |
|----|-----------------------------|
| 1 | 과제를 수행할 때 대충하지 않고 진지하게 임한다. |
| 2 |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한다. |
| 3 | 요구사항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 4 |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한다. |
| 5 |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
| 6 |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려고 한다. |
| 7 | 학교과제를 빨리 끝내는 편이다. |

(2) 퍼즐게임

퍼즐게임은 Zigler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하고 Harter(1974)가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정인지체아동 3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예비검사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정인지체아동 3명에게 퍼즐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특수교사 3인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평정자간 일치도가 100%가 될 때까지 조정하였다.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아동에게 4가지 수준의 퍼즐을 단계 별로 제시하여 2분 내에 퍼즐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아동의 과제수행시 얼굴표정을 녹화하여 특수교사 3인이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득점계산은 웃음이 전혀 없으면 0점, 약간 미소 지을 경우에는 1점, 많이 웃으면 2점, 크게 소리내어 웃을 경우에는 3점이다.

2) 외부지향성 검사

외부지향성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효능동기 측정과 마찬가지로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를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동에게 ‘스티커 게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수행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1)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

앞서 진술한 효능동기 측정도구에서 사용된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 가운데 외부지향성과 관련된 7문항을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의 변화를 보기 위한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외부지향성과 관련된 문항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의 외부지향성 문항 내용

| 번호 | 문항 내용 |
|----|---|
| 1 | 다른 사람이 하는 과제를 그대로 따라한다. |
| 2 |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
| 3 | 결과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따라한다. |
| 4 | 사회적 관습에 따라 행동한다. |
| 5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치없는 일이라고 하면 쉽게 포기한다. |
| 6 | 지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
| 7 |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다. |

(2) 스티커 게임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Zigler와 Lustman(1982)이 개발한 스티

키 게임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일반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정인지체아동 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아동에게 5가지 배경그림과 3가지 스티커를 제시하면서 연구자가 그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연구자가 5가지 배경그림 중에서 1가지 배경그림을 선택하고 1개의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한 뒤에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 연구자가 완성한 그림을 아동들에게 보여주고 아동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그림을 만들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아동에게 5가지 배경그림과 9가지의 스티커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5가지 배경그림에서 2가지 배경그림을 선택하고 3개의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한 뒤에 만든 것을 보여주고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 첫 번째 단계처럼 연구자가 완성한 그림을 보여주고 아동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그림을 만들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연구자는 아동의 그림과 형태를 보고 연구자가 사전에 제시한 그림의 제목, 형태, 사용한 스티커 색깔, 배경색깔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통해 아동의 외부지향성을 채점한다. 이 게임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r=.93$ 이며 점수체계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스티커 게임 점수표

| 항목 | 점수 | 평가내용 |
|--------|----|---|
| 그림의 제목 | 0점 | 모델의 제목과 완전히 다른 제목 |
| | 1점 | 모델이 사용한 제목과 유사한 제목 |
| | 2점 | 모델과 이름 중에서 한 가지 이름 사용 |
| | 3점 | 모델이 사용한 제목과 같은 제목 |
| 형태 | 0점 | 모델의 그림과 닮지 않은 디자인 |
| | 1점 | 모델의 그림과 약간 유사한 개념의 디자인 |
| | 2점 | 모델의 그림과 유사한 디자인 |
| | 3점 | 모델의 그림과 아주 유사한 디자인 |
| 스티커 색깔 | 0점 | 모델이 사용한 스티커와 아동이 사용한 스티커 색깔이 반 이하로 똑같은 경우 |
| | 1점 | 모델이 사용한 스티커와 아동이 사용한 스티커 색깔이 반 이상 동일한 경우 |
| | 2점 | 모델이 사용한 스티커와 아동이 사용한 스티커 색깔이 동일한 경우 |
| 배경 | 0점 | 모델이 사용한 배경색과 다른 색을 사용한 경우 |
| | 1점 | 모델이 사용한 배경색과 같은 색을 사용한 경우 |
| | 2점 | 모델이 사용한 배경색을 사용하고 같은 위치에 배치한 경우 |

4. 연구절차

1) 대상 선정

대상은 P시내에 소재하며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초등학교에서 선정하되 담임교사와의 상담과 부모의 동의 하에 선정하였다.

2) 사전검사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들의 담임교사에게 교사보고식 성격검사 설문지를 주고 아동의 성격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인지체아동들을 대상으로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스티커 게임과 퍼즐 게임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3) 실험처치

(1) 난화활동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은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은 낮추고 효능동기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권상구(1997) 「아동미술교육」, 김동연 외(2002)의 「미술활동 프로그램」, 김재은(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김정(1986) 「아동과 미술교육」, 정명주 외(2002)의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 정여주(2003)의 「미술치료의 이해」, 한국미술치료학회(1994)의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16가지 난화 활동을 선정하였다. 난화활동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 둘째, 그리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방법
- 셋째, 정서-지각-운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
- 넷째, 쉽게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정인지체아동들에게 예비 적용하여 수정, 보완한 후 미술치료 전문가 2인과 특수교육 전문가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활동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사고형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12회기의 집단 활동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4회기의 개별 활동으로 총 16회기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난화활동프로그램

| 회기 | 난화활동 과제 | 활동 형태 | 활동목적 | 회기 | 난화활동 과제 | 활동 형태 | 활동목적 |
|----|-------------|-------|-------------|----|--------------|-------|-------------|
| 1 | 숨은그림찾기 | 집단 | 라포형성 | 9 | 이어그리기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 2 | 이야기 꾸미기(I) | 개별 | 자신감형성 | 10 | 풀그림(II) | 집단 | 또래와의 상호작용 |
| 3 | 음악과의 만남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11 | 이야기 꾸미기(III) | 개별 | 자신감형성 |
| 4 | 먹지에 그리기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12 | 실그림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 5 | 풀그림(I) | 집단 | 또래와의 상호작용 | 13 | 찢어 붙이기 | 개별 | 자신감형성 |
| 6 | 이야기 꾸미기(II) | 개별 | 자신감형성 | 14 | 찍기 | 집단 | 또래와의 상호작용 |
| 7 | 협동화(I)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15 | 협동화(II) | 집단 | 집단 내 감정 공유 |
| 8 | 그림 완성하기 | 2인 1조 | 창의적인 이미지 발견 | 16 | 종결 전시회 | 집단 | 또래와의 상호작용 |

(2) 프로그램 실시방법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매주 2회씩 총16회기를 방과 후에 초등학교 특별실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조교사 1명이 같이 수업에 참석하였다. 매 회기별 난화활동은 아동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완성하거나 개별적, 혹은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활동하여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회기별 난화활동은 도입(10분)과 전개(30분), 정리(10분)의 3단계로 총 5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은 표 II-7과 같다.

<표 II-7> 회기별 난화활동프로그램 구성

| 단계 | 활동내용 | 주의사항 |
|----------|---|--|
| 도입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화활동에 필요한 과정과 재료 설명하기 난화활동 준비 동작해 보기 (공중에 다양한 선을 그어보거나 연습지에 난화를 자유롭게 그어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팔과 손의 움직임에 대한 준비동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

<표 II-7>에서 계속

| 단계 | 활동내용 | 주의사항 |
|-------------|---|---|
| 전개 (3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를 선택 한다 · 자유로운 동작으로 난화를 표현한다 · 작품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발견하면 연구자 혹은 활동자와 이미지를 교류하고 이미지를 탐색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나 짝을 이루어 활동 시에는 제목과 재료 선택에 유의한다. |
| 정리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활동 재료와 주변을 정리 한다 | |

5) 사후검사

난화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외부지향성 검사와 효능동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차이분석을 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인 대응2-표본검증을 실시하고, 검정유형으로 Wilcoxon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효능동기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난화활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효능동기 기술통계량

| 검사도구 | 구분 | n | M | SD | 최소값 | 최대값 |
|--------------|----|---|-------|------|-----|-----|
| 교사보고식 설문지 | 사전 | 6 | 9.67 | 4.89 | 3 | 18 |
| | 사후 | 6 | 26.17 | 2.99 | 21 | 29 |
| 퍼즐게임 | 사전 | 6 | .33 | .52 | 0 | 1 |
| | 사후 | 6 | 1.33 | .82 | 0 | 2 |

표 III-1 가운데 교사보고식 설문지 결과를 살펴보면 난화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평균 9.67이던 효능동기 점수가 사후검사 결과 평균 26.1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직접 참여한 퍼즐게임 결과를 살펴보면 난화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평균 .33이던 효능동기 점수가 사후검사 결과 평균 1.33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난화활동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효능동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 효능동기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 검사도구 | 사후-사전 | 순위형태 | n | 평균순위 | 순위합 | Z |
|--------------|-------|-------|---|------|-------|--------|
| 교사보고식 설문지 | 사후-사전 | 음의 순위 | 0 | .00 | .00 | -2.21* |
| | | 양의 순위 | 6 | 3.50 | 21.00 | |
| | | 동률 | 0 | | | |
| 퍼즐게임 | 사후-사전 | 음의 순위 | 0 | .00 | .00 | -1.86 |
| | | 양의 순위 | 4 | 2.50 | 10.00 | |
| | | 동률 | 2 | | | |

*p<.05

표 III-2에 따르면 교사보고식 설문지에서는 난화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지체아동의 효능동기는 사후검사 값이 사전검사 값보다 작은 경우의 평균순위가 .00이며, 큰 경우의 평균순위는 3.50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증 결과 사전-사후 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21, p<.05).

그리고 아동이 직접 참여한 퍼즐게임에서의 효능동기의 사후검사 값이 사전검사 값보다 작은 경우의 평균순위는 .00이며, 큰 경우의 평균순위는 2.50이었다. 이에 대한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증 결과 사전-사후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효능동기가 증가하였다(z=-1.86, p>.05).

2.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효능동기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난화활동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외부지향성 기술통계량

| 검사도구 | 구분 | n | M | SD | 최소값 | 최대값 |
|---------------|----|---|-------|------|-----|-----|
| 교사 보고식 설문지 | 사전 | 6 | 21.00 | 4.34 | 16 | 29 |
| | 사후 | 6 | 15.50 | 2.88 | 13 | 21 |
| 스티커 게임 | 사전 | 6 | 9.67 | 4.89 | 3 | 18 |
| | 사후 | 6 | 8.00 | 3.58 | 4 | 14 |

표 III-3 가운데 교사보고식 설문지 결과를 살펴보면 난화활동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평균 21점이던 외부지향성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평균 15.50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직접 참여한 스티커게임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평균 9.67이던 외부지향성 점수가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8.00으로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난화활동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외부지향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외부지향성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 검사도구 | 사후-사전 | 순위형태 | n | 평균순위 | 순위합 | Z |
|--------------|-------|-------|---|------|-------|--------|
| 교사보고식 설문지 | 사후-사전 | 음의 순위 | 6 | 3.50 | 21.00 | -2.20* |
| | | 양의 순위 | 0 | .00 | .00 | |
| | | 동률 | 0 | | | |
| 스티커게임 | 사후-사전 | 음의 순위 | 4 | 2.50 | 10.00 | -.68 |
| | | 양의 순위 | 1 | 5.00 | 5.00 | |
| | | 동률 | 1 | | | |

*p<.05

표 III-4에 따르면 난화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에 대한 교사보고식 설문지 점수에서는 사후검사 값이 사전검사 값보다 작은 경우의 평균순위는 3.50이며, 큰 경우의 평균순위는 .00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증 결과 사전-사후 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z=-2.20$, $p<.05$).

그리고 아동이 직접 참여한 스티커게임에서의 외부지향성의 사후검사 값이 사전검사 값보다 작은 경우의 평균순위는 2.50이며, 큰 경우의 평균순위는 5.00으로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 결과 사전-사후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외부지향성이 감소하였다($z=-.68$,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보고식 검사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과제수행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교사보고식 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과제수행 행동평가 결과에서도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낙서와 같이 아무렇게나 긁적거리고 휘갈겨 그리는 난화활동이 정인지체아동에게 손쉽게 과제를 완성하는 경험을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인지체아동들이 난화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패경험을 가지지 않고 성공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능동기가 높아진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효능동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보고와 아동수행평가의 두 가지 측정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사보고에 따른 난화활동프로그램의 효능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었지만, 게임을 통한 아동의 효능동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인지체아동이 수행한 게임과제수행 조건은 연구자와 통제된 실험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상장면과 같은 비통제된 상황에서의 효능동기 발휘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평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효능동기 증진은 없었지만, 난화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으로 효능동기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난화활동프로그램은 낙서와 같이 아무렇게나 긁거나 긁적거리고 휘갈겨 그리는 자유로움 가운데 의미있는 형상을 찾아가는 놀이이자 미술활동으로서 정인지체아동들에게 자유롭고 손쉬운 과제완성 경험을 제공해 준다(Gardner,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난화활동과 같은 과제완성 경험을 정인지체아동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패경험을 가지지 않고 반복적인 성공경험을 제공한다면, 효능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Bennett-Gates & Zigler, 1999).

둘째,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지향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효능동기를 측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보고식검사와 아동수행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교사보고식 평가에서는 외부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을 측정하는 스티커 게임에서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외부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난화활동프로그램이 찍기, 찢어 붙이기, 먹지에 그리기, 풀 그림, 이야기 꾸미기 등의 다양한 활동과 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난화 작업을 하면서 다른 미술활동에 비해 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로 인해 충분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정인지체아동들은 학교현장에서의 반복된 실패 경험을 많이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교사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Achenbach & Zigler, 1968; Bybee & Zigler, 1992; Turner & Zigler, 196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정인지체학생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제시해 주었더니 교사와 같은 외부자에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부정적 성향이 줄어들었다.

한편, 난화활동프로그램에서 정인지체아동들은 다양한 재료와 용구로 자유롭게 난화를 완성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쉽게 작품을 완성하여 성공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난화활동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난화활동과 마찬가지로 미술치료에 대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영아(2004)는 미술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치료사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던 학생들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또래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되었고, 더욱 자율적인 참여와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집단미술치료가 여고생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윤경숙(2003)도 집단미술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던 대다수의 집단원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인지체아동들이 난화활동을 통하여 교사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다른 아동들의 활동을 관찰한 뒤 자신의 그림을 시작하였던 것에 반해 후반부로 갈수록 스스로 그림활동에 집중하고 다른 아동의 활동에 대한 모방이나 관심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정인지체아동들은 언어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표현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지만 다른 아동들 앞에서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난화활동프로그램은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 감소에 역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 유용한 교육적 중재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화활동프로그램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정인지체아동에게 성공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정인지체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인 효능동기를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난화활동프로그램은 정해진 틀이 있는 활동이 아닌 자유로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스스로 결과물들을 찾아가는 작업이기에 성인이나 또래와 같은 외부적 단서들에 의존하는 외부지향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적 접근이나 후속연구에 관련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에서는 정인지체아동의 효능동기와 외부지향성과 같은 정서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인데, 정인지체학생의 교육장면별,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관련정보들이 축적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인지체아동의 외부지향성과 효능동기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보고식 검사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과제수행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완전히 일치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기간 연장과 실험수행 조건 등을 조작적으로 변화시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타당화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상구 (1997). **아동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 김경은 (2003). 자아개념 증진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김동연, 이근매, 최은영 (2002). **미술활동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선화 (2002). 집단미술치료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영주 (2004). 위축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 (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과학사.
- 김 정 (1986). **아동과 미술교육**. 서울: 배영사.
- 김현숙 (2001).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긍심과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박미정 (2000).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의 부적응, 성격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아 (200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손성화, 강영심, 김지훈 (2006). 정신지체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HTP 반응특성 비교. **특수교육학 연구**, 41(1), 17-38.
- 오규영 (200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장애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윤경숙(2003). 집단미술치료가 여고생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이인호 (2005).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 정명주, 전현주, 안태희 (2002). **아동미술치료, 이렇게 하세요**. 서울: 형설출판사.
-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효정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조난희(2001). 성패경험이 귀인성향 및 귀인효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팽은경 (2002). 자화상 표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chenbach, T., & Zigler, E. (1968). Cue-learning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in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3, 827-848.
- Balla, D., Butterfield, E. & Zigler, E. (1974).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on retarded children: A longitudinal,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8, 530-549.
- Balla, D., Styfco, S.J., & Zigler, E. (1971). Use of the opposition concept and outerdirectedness in intellectually-average, familial retarded, and organic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7, 663-680.
- Bennett-Gates, D., & Zigler, E. (1999). Effectance motivation. In Zigler, E., Bennett-Gates, D. & Hodapp, D.(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tterfield, E., & Zigler, E. (1965). The effect of success and failure on the discrimination learning of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0, 25-31.
- Bybee, J., & Zigler, E. (1999). Outerdirectedness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a review. In Zigler, E., Bennett-Gates, D. & Hodapp, D.(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 & Zigler, E. (1992). Is outerdirectedness employed in a harmful or beneficial manner by students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 512-521.
- Claman, L. (1980). The squiggle drawing game in child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4(33), 414-425.
- Cohen, M.E., & Heller, T.(1975). Information producing responses in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Exceptional Child Psychology*, 20, 296-236.
- Cromwell, R. (1963). A Social learning approach to mental retardation. In N.R. Ellis(ed). *Handbook of mental deficiency*. New York: McGraw-Hill.
- Dweck, C. S., & Bush, E. S. (1976). Sex difference in learned helplessness: differential

- debilitation with peer and adult evaluator.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47-156.
- Dykens, E. M. (1999). Personality-motivation: new ties to psychopathology, etiology, and intervention. In Zigler, E., Bennett-Gates, D. & Hodapp, D.(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R. A. (1971). *Therapeutic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Mutual Story-Telling Technique*. New York: Jason Aronson.
- Gardner, J., & Seligman, M. E. P.(eds). (1980).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Harter, S. (1974). Pleasure derived By children from cognitive challenge and mastery. *Child Development*, 45, 661-669.
- Harter, S. (1977). The effects of social reinforcement and task difficulty level on the pleasure derived by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from cognitive challenge and mastery. *Journal of Exceptional Child Psychology*, 24, 476-494.
- Klepsch, M., & Logie, L.(1982). Children draw and tell: A introduction to the projective uses of children's human figure drawing. New York: Brunner/Mazel.
- Kurihara, R. (1994). Using Squiggle-Drawing Game in assessment of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Play Journal*, 2, 135-152.
- Lustman, N. & Zigler, E. (1982). Imitation by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mentally retarded and non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252-258.
- MacMillan, D.L, & Wright, D.L (1974). Outerdirectedness in Children of three ages as a function of experimentally induced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919-925.
- Merighi, J., Edison, M., & Zigler, E. (1990).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in the functioning of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In R. Hodapp, J. Burack, & E.
- Shallenberger, P., & Zigler, E. (1961). Rigidity, negative reaction tendencies, and cosatitaiion effects in normal and feeblemind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20-26.
- Sherpherd, D. (1987). Application of the scribble as art therapy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Los Angeles: Loyola Marymount University.
- Takano, S. & Kurihara. R. (1992). Using the Squiggle-Drawing Game in Assessment of Preschool Children. *Tsukuba Psychological Research*, 14,
- Zigler, E., & Balla, D. (1972). Developmental course of responsiveness to social reinforcement in normal children and institutionalized retard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6, 66-73.
- Zigler, E., Bennett-Gates, D., & Hodapp, R. (1999). *Personality development in mental retard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gler, E., & Hodapp, R. (1986). *Understanding mental retard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gler, E., & Lustman, N. (1982). Imitation by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mentally retarded and non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7, 252-258.

Effects of Scribbling Activities Program on the Effectance Motivation and Outerdirectednes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Kim, Kyeong

Center for Longlife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ang, Young-Sim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Mi-A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scribbling activities program on the effectance motivation and outerdirectednes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at effects does scribbling activities program on the outerdirectedness and effectance motivation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

To get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sampled 6 mentally retarded children(3 female, 3 male) from inclusive classes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usan and experimentally treated them using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effectance motivation Test and Outerdirectedness Test were used as devices of the pre- and post-tests. For the experimental treatment, total 16 activities of scribbling were applied for 8 weeks with 2 session a week based.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ffectance motivation of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 was measured using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puzzle game. It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measured with EZPQ, but not when measured with peg game. And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sticker game were used to measure outerdirectedness. The outerdirectedness of the subjects were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measured with personality questionnaire, but not when evaluated with sticker game.

key words : mentally retarded children, scribbling activities program, outerdirectedness, effectance motivation